

‘역전 만루포’ KIA 김도영 타격 천재의 부활 신호탄

키움 주중 1차전서 5회말 ‘결승 만루홈런’ “매 경기 좋아지고 있어…타격감 회복 집중”



“저를 믿고 타격감 올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KIA타이거즈의 ‘슈퍼스타’ 김도영이 팀을 승리로 이끄는 역전 만루포를 쏘아 올리면서 천재 타자의 부활을 예고했다. 김도영은 지난 14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키움하어로즈와의 주중 1차전 경기에서 그랜드슬램을 폭발시키며 팀의 6-2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팀이 1-2로 밀리고 있던 5회말 1사 만루에서 김선빈이 1타점 적시타를 터트렸다. 이어진 만루 찬스에서 타석에 오른 건 김도영. 그는 상대 투수 하영민의 2구째 131km 포크볼을 그대로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역전 만루포를 쏘아 올렸다. 비거리 125m의 대형 타구였다. 올 시즌 개인 4호 홈런이자, 개인 통산 3번째 만루 홈런이기도 했다. 이 타격으로 경기는 순식간에 6-2로 뒤집혔다.

사실 김도영은 최근 타격감이 좋지 못했다. 이날 경기 직전 타율은 0.224에 그쳤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미친 타격감을 선보인 이후 타격 사이클이 떨어진 모양새였다. 하지만 이날 결정적인 순간에 큰 타구를 생산하면서 앞으로의 밝은 전망을 그렸다. 경기 후 김도영은 “첫 타석부터 나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제 코치님도 오늘은 괜찮다고 말씀하셨다”며 “믿음을 가지고 플레이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결정적인 타격이 올 때 좋다. 내가 믿고 해결했다고 생각해서 후련했고, 기분이 많이 좋았다”고 말했다.

김도영은 지난 8일 삼성전과 10일 한화전에서 연달아 홈런을 터트렸다. 이후 3경기 만에 다시 홈런을 맞았다. WBC 당시보다 타격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조금씩 집중력을 찾아가는 단계다.

그는 “아무래도 시즌 초반부터 결과가 좋지 않다. (WBC 당시보다) 사이클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2024년 당시에도 시즌 초반에는 좋지 않아서 그걸 위안 삼고 있다”면서 “최근 경기에서는 조금씩 감각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 매 경기 좋아하는 느낌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도영은 팀의 득점을 책임지는 4번 타수에 배치되고 있다.

부담이 있는 자리이기에 적응하기 어려울 법도 하지만, 그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김도영은 “지금 4번을 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그냥 상황에 맞게 플레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어느 위치든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자는 생각이다”고 전했다.

김도영 지난해 3차례에 걸쳐 햄스트링 부상을 겪었다. 이에 부상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그는 “매 경기 준비를 더 확실히 하려고 한다. 덕아웃에 오래 앉아 있다가 나가면 햄스트링을 계속 풀면서 부상을 방지하고 있다”면서 “수비에 나가서도 타구가 올 거 같은 상황에서는 앉았다 일어나는 등 몸을 푼다. 지금 몸 상태는 좋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KIA는 최근 5연승을 달리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김도영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팀도 사이클이 있는 것 같다. 안 좋을 때는 ‘이러다 143패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면서 안 울라갈 것 같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사이클이 있다는 걸 느꼈다”며 “그걸 믿고 경기를 뛰다 보면 나중에는 그에 맞는 위치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들려줬다.

김도영은 2024시즌 믿기 힘든 활약을 펼치면서 MVP에 선정됐다. 올 시즌 초반 기대만큼의 활약은 없었지만, 빠르게 자신의 타격감을 찾아가겠다는 각오다.

김도영은 “팀이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니깐 확실히 타석에서 내 모습을 더 찾게 되는 것 같다”면서 “이제는 내가 타격감을 빨리 올리는 것에만 집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옐로우 브릿지’ 1호점 출범...상생 첫걸음

정성카츠 회장님께서 현판 전달식 개최 동반 성장 기반...“밀착 마케팅 지속”



광주FC는 최근 ‘정성카츠 회장님께서 찾아 ‘옐로우 브릿지’ 1호점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정재은 정성카츠 회장님, 이현 광주FC 경영본부장, 사진제공=광주FC.

프로축구 광주FC의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후원의 집 프로그램 ‘옐로우 브릿지’가 첫발을 뒀다.

광주는 최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정성카츠 회장님께서 찾아 ‘옐로우 브릿지’ 1호점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 광주FC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구단 관계자와 정재은 정성카츠 회장님께서 대표가 참석했다.

‘옐로우 브릿지’는 구단과 지역 소상공인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상생 프로그램이다. 참여 업체에는 후원의 집 현판과 홍보물이 제공되며, 구단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홍보 기회도 함께 주어진다.

1호점으로 선정된 정성카츠 회장은 돈까스와 나베 등 일식 메뉴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매장이다. 이번 참여를 통해 구단과 함께하는 지역 밀착형 상생 모델 구축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광주는 이번 1호점 선정을 시작으로 ‘옐로우 브

릿지’ 참여 업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단과 지역 상권 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팬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현 광주FC 경영본부장은 “옐로우 브릿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구단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제15회 충주 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에서 다수의 금메달을 획득한 광주체고 조정부. 사진제공=광주체고

광주체고 조정부, 충주탄금호배서 ‘금빛 물살’

여자부 5종목 금메달 석권...노효림·이수아 등 5명 2관왕

광주체육고등학교 조정부가 ‘제15회 충주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에서 금빛 물살을 가르며 전국 무대에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광주체고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충주 탄금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여자부 금메달 5개, 남자부 금메달 1개를 포함해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고등부 조정 명문의 위상을 드러냈다. 특히 여자부의 활약이 돋보였다. 쿼드러플스컬, 싱글스컬, 경량급 싱글스컬, 더블스컬, 경량급 더블스컬 등 스킵 부문 5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쓸었다.

여고부 쿼드러플스컬에서는 노효림·천지민·배지영(이상 2년)·권지영(1년)이 한 조를 이뤄 7분 20초12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더블스컬에서도 천지민·권지영 조가 7분53초 29로 1위에 올랐고, 경량급 더블스컬에서는 배지영·이수아 조가 7분52초05를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다.

개인전 역시 금빛 레이스가 이어졌다. 노효림은 여고부 싱글스컬에서 8분38초10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이수아는 경량급 싱글스컬에서 8분37초31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노효림, 천지민, 배지영, 권지영, 이수아 등 5명은 나란히 대회 2관왕에 오르며 광주체고 조정부의 두터운 전력을 증명했다.

남자부 또한 값진 성과가 이어졌다. 남고부 경량급 싱글스컬에 출전한 박준호(3년)는 7분31초14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같은 종목에 나선 박성빈(3년)은 7분52초84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남고부 쿼드러플스컬에서는 박준호·박성빈(이상 3학년)·김영민·김준영(이상 1학년) 조가 6분 45초75를 기록하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체고는 이번 대회에서 다수 종목 우승과 함께 개인·단체전 전반에 걸쳐 모든 성과를 거두며 조정 명문의 입지를 다졌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체육회,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나선다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운영...7개 클럽에 1억원 지원

광주시체육회가 지역 청소년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에 본격 나선다.

15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청소년 건강 증진과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6 스포츠클럽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스포츠클럽 시행에 발맞춰 청소년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정 스포츠 클럽의 종목별 프로그램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약 9개월간 진행되며, 광주지역 7개 지정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총 1억원(광주시비)이 투입된다.

참여 클럽은 서구스포츠클럽, 동강스포츠클럽 등 지역별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구성됐다. 농구, 수영, 양궁, 태권도, 축구 등 다양한 종목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초등학생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낮은 현실을 고려해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체육 참여 확대는 물론, 전문 선수로의 성장 기반까지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체육회가 청소년 건강 증진과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6 스포츠클럽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이다. 시체육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스포츠클럽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청소년 중심의 지속가능한 순환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담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지정 스포츠클럽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스포츠클럽을 확대하는 등 스포츠 복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